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10 권 제 1 호 1992

도시주부의 계획행동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ning Styles of Urban Wives and Related Variables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대학원졸
具 惠 玲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versity
Graduate School : Hye Kyoung Koo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부교수 : 李 基 榮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versity
Associate Prof. : Ki Young Lee

서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趙 英 姬

Dept. of Home Management
Seo-Won University
Instructor : Young Hee Cho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배경
제 1 절 체계에서의 계획행동
제 2 절 계획행동의 유형
제 3 절 계획행동의 관련요인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의 구성
제 2 절 연구문제의 설정
제 3 절 연구방법 및 절차
Ⅳ.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계획행동의 유형 및 각 유형별 계획행동의 수준
제 2 절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정도에 따른 계획행동의 유형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lanning styles and the differences of the level of planning styles according to individuals, family related variables and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60 wives living in seoul and Daejeon. Survey methods were questionnaire. Data analysis strategies were percentile,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factor analysis, oneway analysis and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Planning styl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factors. They were labeled resource-centered, goal-centered, constrained planning style.

2) Wives tended to more frequently use a goal-centered planning style.

3) The perceived adequacy of health resource, the perceived adequacy of inter-personnal resource and occupation of husband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level of resouce-centered planning style.

4) The perceived adequacy of money resource was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level of constrained planning style.

5) The perceived adequacy of money resource and the age of youngest child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level of goal-centered planning style.

Ⅰ. 서 론

여성들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가정관리행동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행동으로서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주부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며 또한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개별 가정 차원의 문제로 한정되어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날 산업화의 진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정생활에 변화를 주었다. 즉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예를 들면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가족의 역할분담, 시간사용문제, 핵가족화에 따른 노후대책문제, 자녀교육문제, 이혼율증가에 따른 편부모 가정문제, 주택문제, 여가문제, 과소비문제 등-들은 가정생활에 보다 합리성, 목적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한 주부의 고도의 관리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가정은 사회제도나 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가고 있으므로 사회적 자원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요구된다. 동시에 가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가정의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하고 이는 우선적으로 관리행동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계획행동의 고찰을 통해 출발해야한다. 계획이란 가족의 가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그리고 환경적인 요구가 고려된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계획행동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 Heck(1983)은 계획행동의 여부가 관리행동의 성공척도인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Deacon과 Firebaugh(1988)는 다중결과성, 동일결과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계획유형이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상황이나 조건에서 시작한 두 가족이 어떻게 비슷한 조건으로 귀결되었는가 또는 유사한 기회나 조건을 갖고 있던 두 가족이 어떻게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단순히 투입과 산출만은 연구해서는 알 수 없고, 체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관리행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리행동, 특히 계획행동은 체계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고 또 이는 생활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계획행동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계획행동의 여부와 계획행동유형은 가족의 만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만족수준을 규정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 복지 내지 사회복지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가정관리행동은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의 관리행동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생활에 대한 계획행동의 실태 및 유형을 파악하고 계획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제 1 절 체계에서의 계획

체계적 접근법에서 볼 때, 투입을 받아들여서 산출로 향해가는 과정에 위치하는 것이 관리과정이다. Rice와 Tucker(1986)와 Deacon과 Firebaugh (1988)는 관리과정을 계획(planning)과 수행(implementing)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Gross, Crandall과 Knoll(1980)은 목표설정(goal setting), 계획(planning), 그리고 목표와 계획의 수행(implementing of goals and plans)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계획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먼저, Gross와 그의 동료들(1980)은 "가족의 미래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Rice와 Tucker(1986)는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Deacon과 Firebaugh(1988)는 "계획이란 인지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상상하는 과정으로 미래의 표준과 행동의 순서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김외숙, 이기영과 최은숙(1990)은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학자에 따라 계획의 정의는 차이를 보이지만, 관리체계의 일부분인 계획은 행동의 근거가 되는 표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일의 순서를 결정함으로써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고 관리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정관리의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활동으로서의 의미에 계획행동이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제 2 절 계획행동의 유형

Beard와 Firebaugh(1978)는 경계의 유지, 표준설정과 행동순서화, 현재 체계구조에의 몰입정도, 그리고 새 요구에 대한 적응정도에 따라 계획행동의 유형을 안정지향적 계획행동과 변화지향적 계획행동으로 분류하였다. 경계의 유지 측면에서 볼 때, 안정지향적 계획행동을 하는 체계는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세워진 규칙이나 일상생활, 의무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비현실적이거나 더 이상 만족을 줄 수 없을 때에도 계속 목표를 고수하고자 한다. 또한 체계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려고 하고, 자원이 이용가능하다고 인식되지 않는 한, 가족의 경계는 가족의 새로운 요구나 목표를 수용하지 않고 억제한다. 반면에 변화지향적 계획행동을 하는 체계는 자원이 이용가능하기 전에도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전보다 더 바람직한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요구와 자원간의 불균형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변화지향적 계획행동은 새로운 자원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과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현재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한편, 표준설정과 행동순서화에 있어서 안정지향적 계획행동은 비융통적인 표준과 분명한 목표를 포함한다. 이러한 행동은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자원사용의 계획을 개발시키고자 하고 따라서 비융통적인 자원사용을 낳기도 한다. 반면에 변화지향적 계획행동은 목표충족을 위한 표준의 범위를 넓게 갖는다. 따라서 과업의 순서를 정하거나 목표를 바꿀 때에도 융통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안정지향적 계획행동을 하는 체계는 현재 갖고있는 체계 구조에 대한 몰입정도가 커서 구조의 변화를 꺼려하는 반면에, 변화지향적 계획행동을 하는 체계는 체계로의 다양한 투입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구조를 기꺼이 수용한다. 마지막으로 새 요구에 대한 적응정도도 두 계획행동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안정지향적 계획행동은 특정한 목표나 이미 개발된 계획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새로운 요구에 대한 적응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변화지향적 계획행동은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Gross와 그의 동료들(1980)은 계획의 유형을 목표지향적 계획과 지시적인 계획으로 분류하였다. 목표지향적 계획이란 계획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는 것으로 이 유형의 행동은 효율적일 수 있으나 목표 이외의

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다. 이 유형은 Beard와 Firebaugh(1978)의 '안정지향적 계획행동', McCaskey(1974)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계획행동'과 일치한다. 지시적인 계획이란 계획에 대한 영역과 지시를 분명히 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여기서 영역이란 계획자가 일할 장소를 의미하고 지시는 계획자가 선호하는 일의 방법을 의미한다. 이 유형의 계획을 하는 계획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환경의 기회와 제약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 유형은 Beard와 Firebaugh(1978)의 '변화지향적 계획행동', McCaskey(1974)의 '지시적 계획'과 일치한다.

또한 Buehler와 Hogan(1986)은 계획의 유형을 자원중심적 유형, 목표중심적 유형, 제약적 유형으로 나누었다. 목표중심적 유형은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자원구조의 한계에 따르기 위해 요구를 미루거나 제거하고, 또는 표준을 낮춤으로써 요구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촛점을 두어 계획행동을 한다. 자원중심적 유형은 목표중심적 유형과는 상반되게 요구구조에 맞추기 위해 자원을 창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자원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행동을 의미한다. 이 유형은 현재 자원이 이용가능하지 않더라도 자원구조를 바꾸고자 한다. Buehler와 Hogan(1986)은 목표중심적 유형은 요구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자원중심적 유형은 자원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이 두 유형 모두 Buehler와 Firebaugh(1978)가 말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체계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변화지향적 계획행동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제약적 유형은 일반적인 계획의 정의에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유형의 특징은 반작용, 제약, 현재지향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또한 주로 금전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부적합하기 때문에 가족은 제약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Buehler와 Hogan(1986)은 제약적 유형의 가족이 계획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계획의 특성에 제약적 계획행동의 측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Deacon과 Firebaugh(1988)는 계획이 안정지향적 체계, 변화지향적 체계, 무작위적인 체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면서, 각 체계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안정지향적 체계는 현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원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이나 기회가 거의 없고 행동의 순서를 정할때도 융통성이 낮다. 반면에 변화지향적 체계는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새로운 목표를 수용하고 자원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활발하며 행동의 순서를 정할 때도 상당히 융통적이고 적응이 뛰어나다. 또한 무작위적 체계에서는 '모든 것을 되는대로 놓아두는 것'이 계획이라고 표현될 만큼, 계획은 유동적이며 비구조적이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계획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Deacon과 Firebaugh(1988)가 지적한 것처럼, 개인이나 가족은 오로지 한 유형으로서만 기능할 수 없고 여러 유형이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체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정성과 적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이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가족이나 환경의 요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요구해결에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계획행동의 관련요인

계획행동의 유형과 관련요인을 다룬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계획행동을 포함한 관리행동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므로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연 령

박미금과 장명욱(1985)은 연령이 낮을수록 보다 긍정적이며 우수한 계획행동을 한다고 하였고, 조영희(1985)는 연령이 시간관리와 자원관리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정우와 오경희(1988a)는 30세 미만의 주부가 50세 이상의 주부보다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한다고 하였고, 이안나, 신효식과 우희정(1991)은 20대의 주부가 30대의 주부에 비해 보다 변화지향적인 시간관리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정우와 오경희(1988b)

의 연구에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애정에 대해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한다고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Buehler와 Hogan(1986)의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재약적인 계획행동을 덜하는 반면, 목표지향적인 계획행동은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Deacon과 Firebaugh(1988)는 연령과 계획행동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연령에 따라서 계획행동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결과도 있다(이정우, 1982 ; 이정숙과 이정우, 1984 ; 조미환과 임정빈, 1991 ; Brown, Heltsley와 Warren, 1982).

2) 교육수준

많은 연구들이 교육수준과 계획행동이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이정우(1982)는 교육수준에 따라 관리행동이 차이가 난다고 하였고, 박미금과 장명욱(1985)는 학력이 높을수록 계획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정숙과 이정우(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조영희(1985)의 연구에서는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주부가 다른 주부에 비해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한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조미환과 임정빈(1991)의 연구와 이안나와 그의 동료들(1991)의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이정우와 오경희(1988a)는 학력이 높을수록 애정에 대한 관리행동이 보다 변화지향적이라고 하였는데, 이정우와 오경희(1988b)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애정에 대해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Buehler와 Hogan(1986)의 연구에서는 편모가족에서는 편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중심적인 계획행동을 많이하고, 편부가족에서는 편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제약적인 계획행동을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acon과 Firebaugh(1988)는 교육수준과 계획행동과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Brown과 그의 동료들(1982)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교육과 현실적인 표준을 설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으나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실적인 표준설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부의 취업여부

이정숙과 이정우(1984)는 직업을 가진 주부의 계획능력이 높다고 하였고, 이정우와 오경희(1988b)는 전업주부가 식생활에 대해 더욱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미환과 임정빈(1991)의 연구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해 보다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을 보여준다고 한 조영희(1985)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연숙과 두경자(1992)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표준설정을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취업에 따른 계획행동의 유형과 관리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도 있다(Buehler와 Hogan, 1986 ; 이안나와 그의 동료들, 1991).

4) 직업지위

Buehler와 Hogan(1986)은 편모가족에서는 편모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제약적인 계획행동을 덜하고, 편부가족에서는 편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자원중심적인 계획행동을 덜한다고 하였다.

5) 소득

이정우(1982)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과 가정관리능력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고, 조영희(1985)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과 금전에 대해 보다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계획행동과의 관계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Brown과 그의 동료들, 1982 ; Buehler와 Hogan, 1986 ; 조미환과 임정빈, 1991).

6) 막내자녀연령

Deacon과 Firebaugh(1981), Gross와 그의 동료들(1980), Swanson(1981)은 가족의 요구와 자원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획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변한다고 하였다(Buehler와 Hogan, 1986, 재인용). 또한 Deacon과 Firebaugh(1988)는 자녀의 연령이 가족생활주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막내자녀연령과 계획행동과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변수로 채택하였다.

7) 자원적정지각정도

계획행동의 구성요소인 표준설정에는 요구의 명료화와 자원평가의 과정이 포함된다(Deacon과 Firebaugh, 1988).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분석하는 자원평가과정은 표준을 설정할 때 행동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자원의 수준에 따라 표준의 융통성이 증가될 수도 있고 일정 표준에의 고착정도가 증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원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객관적인 자원의 측정과 주관적인 자원의 측정이 있다. Heider(Rowland, Dodder와 Nickols, 1985, 재인용)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지각된 환경이라고 하였고, 최근의 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생활의 질 지각에 이웃에 대한 만족, 주거만족,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 가족관계 등과 같이 객관적인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여러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만족도는 객관적인 자원의 상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자원의 객관적인 조건을 측정하는 방법과는 달리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는 방법은 행동이 지각된 현실에 근거함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특히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자원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크다고 하겠다(조영희, 1991). 따라서 자원적정지각변수는 자원의 측정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변수로 채택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의 구성

본 연구는 가정관리의 주 담당자인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들의 계획행동의 유형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계획행동유형과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주부들의 가정관리 행동연구에 체계적 접근법이 적용되는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체계적 접근법에 의하면, 투입요소는 통과과정을 거쳐 산출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투입요소와 과정과의 관계만을 다루어 보고자 하고, 투입요소와 산출과의 관계, 통과과정과 산출과의 관계는 후속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체계로의 투입요소가 되는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에는 주부의 자원적정지각정도, 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막내자녀연령, 월평균소득, 주부의 취업여부, 남편의 직업이 포함될 것이고, 자원적정지각정도는 다시 세분화되어 건강자원적정지각정도, 시간자원적정지각정도, 대인적자원적정지각정도, 지식자원적정지각정도, 금전자원적정지각정도, 주거 및 지역사회자원적정지각정도로 분류하여 고찰될 것이다. 또한 체계에서의 통과과정에 속하는 계획행동은 요인분석에 의해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의 설정

〈연구문제 1〉 계획행동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 유형별 계획행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각 유형별 계획행동은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제 3 절 연구방법 및 절차

1. 척도의 구성

1) 계획행동유형

계획행동유형의 척도는 Beard와 Firebaugh(1978)와 Buehler와 Hogan(1986)의 계획행동유형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Beard와 Firebaugh(1978)의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의 유형이 크게 변화지향적 계획행동, 안정지향적 계획행동, 무작위적 계획행동으로 나타났고, Buehler와 Hogan(1986)의 연구에서는 자원중심적 유형, 제약적 유형, 목표중심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변화지향적 계획행동은 자원중심적 유형과, 안정지향적 계획행동은 목표중심적 유형과, 그리고 무작위적 계획행동은 제약적 유형과 그 차원이 거의 일치하고 있고, Buehler와 Hogan의 연구(1986)가

Beard와 Firebaugh(1978) 의 척도를 사용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계획행동의 유형을 목표중심적 유형, 제약적 유형, 자원중심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Buehler와 Hogan(1986)의 계획행동척도가 우리 나라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고자 한다.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은 Beard와 Firebaugh (1978)척도의 문항중에서 요인 부하치가 .40 이상으로 나타나는 문항과 Buehler와 Hogan(1986)의 척도를 수정하여 작성되었다. 각 영역별 문항을 살펴보면, 목표중심적 유형은 11문항, 제약적 유형은 7문항, 자원중심적 유형은 9문항으로, 총 2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정말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 점 리커트 형 척도로 구성하였고, "정말 그렇다"일 때는 4 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 점을 주었다.

2) 자원적정지각척도

자원적정지각척도는 조영희(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자원의 영역은 시간자원영역, 주거자원영역, 금전자원영역, 건강자원영역, 지식자원영역, 지역사회자원영역, 심리적유대자원영역, 사회적지원자원영역 등 모두 8개의 영역으로 분류되었고, 총 28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시간자원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78, 주거자원영역은, .82, 금전자원영역은 .72, 건강자원영역은 .72, 지식자원영역은 .76, 지역사회자원영역은 .55, 심리적유대자원영역은 .65, 사회적지원자원영역은 .74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보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유사한 차원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자원의 영역과, 각 자원영역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호관련성이 높은 영역끼리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다시 6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시간자원영역, 금전자원영역, 건강자원영역, 지식자원영역은 독립된 영역으로 그대로 두고, 주거자원영역과 지역사회자원영역을 한 영역으로 묶고, 사회적지원자원영역과 심리적유대자원영역을 대인적자원으로 묶었는데, 주거 및 지역사회자원영역과 대인적자원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75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문항수는 건강자원영역은 3문항, 시간자원영역은 4문항, 금전자원영역은 4문항, 대인적자원영역은 6문항, 지식자원영역은 4문항, 주거 및 지역사회자원영역은 7문항이었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정말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정말 그렇다"일 때는 4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일 때는 1점을 주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가족자원의 주된 관리자는 대체로 주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주부로 하였다. 그런데 가족의 자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녀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녀를 1인 이상 둔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과 대전이었고, 자료수집은 서울의 국민학교(2개교), 중학교(3개교), 고등학교(2개교)의 학생어머니 330명과 대전의 국민학교(3개교), 중학교(2개교), 고등학교(2개교)의 학생 어머니 320명을 대상으로 1991년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배포된 질문지 650부 중 599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이 부실하게 기재된 39부를 제외하고 모두 56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행동유형의 척도를 구성할 때, 문항들간의 변별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전체문항을 하나의 척도로 구성하고 각 문항과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로 살펴보았다.

둘째, 계획행동이 실제로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세째, 각 유형별 계획행동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네째,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와 계획행동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중다범위검증 및 중분류분석을 적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주부의 연령분포는 20대에서 60대까지 였으며 30, 40대의 연령을 가진 주부가 전체의 92.1% 를 차지했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전체의 75.6%, 초급, 전문대졸업은 6.2%,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상은 18.2% 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71~120 만원인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70만원 이하는 21.0%, 121~200만원은 27.0%, 201 만원 이상은 12.5% 였다.주부의 취업여부는 전업주부가 50.5%, 시간제 취업한 주부는 31.0%, 전일제 취업한 주부는 18.5% 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은 경영, 관리,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전체의 46.6% 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과 생산기능 및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각각 24.4%와 15.3%로 나타났다. 막내자녀 연령을 조사한 결과 7세 이하가 8.6%, 8세~13세가 53.1%, 14~19세는 36.7%, 20세 이상은 16% 로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계획행동의 유형 및 각 유형별 계획행동의 수준

1. 계획행동의 유형

척도구성의 처음 단계에서 문항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문항간 상관관계를 보는 것은 유용하다. 문항간의 상관관계보다는 전체 문항을 하나의 척도로 구성하고 각 문항과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해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계획행동척도는 모두 27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번, 22번 문항은 계획행동척도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고, 17번, 23번, 26번 문항은 상관계수가 .20 이하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계획행동척도와 상관관계가 미약하다고 간주되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Deacon과 Firebaugh (1988)는 계획의 차원을 표준설정(standard setting)과 행동순서화(action sequencing)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계획행동의 문항의 내용은 주로 표준설정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다음으로, 문항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불필요한 문항을 제거하기 위해 총 22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회전방법은 varimax 방법을 이용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모두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Buehler와 Hogan(1986)의 세 가지 계획행동의 유형이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기 전에 미리 요인의 수를 정하여 3개의 요인만이 추출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각 요인에 걸리는 문항의 부하치를 살펴본 결과, 7번, 8번, 9번, 11번, 12번, 15번, 18번 문항의 부하치가 .40 이하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6번 문항의 경우는 부하치가 .42 였으나 연구자가 의도했던 요인의 범주와는 다른 요인에 포함되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 2에는 계획행동척도의 요인 행렬표가 제시되어 있다.각 요인에 묶인 문항을 보면, 요인 I은 목표중심적 계획행동, 요인 II는 제약적 계획행동, 요인 III은 자원중심적 계획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요인들은 전체분산의 28.1% 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목표중심적 계획행동이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수용하면서 가족의 요구를 수정, 제거, 또는 재편성하여 현재 세워진 표준이나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안정지향적인 계획행동을 의미한다. 제약적 계획행동이란 요구나 자원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거의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나 자원에 제약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그럭저럭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는 무작위적인 계획행동을 의미한다. 자원중심적 계획행동은 가족의 목표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자원을 창출, 증가시키는 변화지향적인 계획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모두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계획행동척도가 구성되었다. 목표중심적 계획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51, 제약적 계획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50, 자원중심적 계획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43 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계획행동유형의 신뢰도

표 1. 문항과 계획행동척도와의 상관관계

1. 시간과 돈이 확실히 가능할 때에만 구매계획을 세운다.	.39**
2. 예산에 없던 것에 지출해야 할 경우에 식비, 세금 등 다른 몫으로 떼어놨던 돈에서 지출하는 일은 가급적 피한다.	.29**
3. 소득수준을 넘는 물건은 사고 싶어도 사지 않고, 나중에 살 수 있을 때까지 미룬다.	.34**
4. 일단 예산을 세우면 다른 내용을 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한다.	.44**
5.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더라고 시간과 돈이 가능해야만 초대한다.	.41**
6. 새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할 때 우선 가격을 고려한 다음 크기나 모델을 결정한다.	.32**
7. 학용품이나 다른 물건을 사라고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 학용품이나 그 물건의 가격에 맞추어 준다.	.40**
8. 필요하지만 사 줄 능력이 안되는 물건을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37**
9. 자녀가 용돈의 일부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금액을 보충해 주지 않는다.	.24**
10. 어떤 집에서 살 것인지를 구상할 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돈을 고려한다.	.42**
11. 새 옷을 구입할 때는 먼저 지금 가지고 있는 옷과 어울릴지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41**
12. 물가가 오를 경우 지금보다 낮아지는 생활수준에 그대로 적응하려고 한다.	.30**
13. 인플레나 예기치 않았던 일로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38**
14. 집안일을 하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그 때에 하도록 한다.	.28**
15. 이미 세워 놓은 계획이라도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바꾼다.	.30**
16. 내 능력을 넘는 요구라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서 그 요구를 꼭 달성하도록 한다.	.32**
17. 집안일과 같이 늘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이 그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	.17**
18. 필요하지만 사 줄 능력이 안되는 물건을 자녀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주지 않거나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사도록 한다.	.40**
19. 새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할 때 가격보다는 크기나 모델을 먼저 결정한다.	.02
20. 처음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자세를 갖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34**
21. 물가가 오를 때에도 지금의 생활수준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	.32**
22.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으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초대한다.	.08
23. 가족들은 구입할 능력이 안되는 물건인데도 갖고 싶어한다.	.19**
24. 금전이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37**
25. 원래의 계획이 잘 안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꺼이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32**
26. 자녀가 용돈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지출 계획을 조정해서라도 잃어버린 금액을 보충해준다.	.14**
27.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계획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37**

**$p<.001$

계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의 척도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적용시키고자 했고, 또 질문지의 문항이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척도는 타당도와 신뢰도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 검토,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각 유형별 계획행동의 수준

표 4에는 각 유형별 계획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계획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수는 유형별로 다르지만 총 점수를 문항수로 나누는 것은 선형적인 변형이므로 모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Buehler와 Hogan, 1986) 평균을 이용하여 각 유형별 수준을 살펴보았다.

주부는 계획행동을 할 때, 목표중심적 유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uehler와 Hogan (1986)의 연구결과에서도 편부가족과 편모가족이 모두 목표중심적 계획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계획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계획행동의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계획행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계획행동척도의 요인 행렬표

문항번호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Communality
5	.54	.07	.08	.31
4	.53	−.06	.31	.38
1	.51	.10	.62	.28
3	.49	−.12	−.06	.26
14	.43	−.44	.29	.46
2	.41	−.04	−.06	.28
27	−.11	.65	.21	.48
10	.31	.54	.02	.38
24	.15	.49	−.02	.26
13	.30	.45	.01	.29
20	−.02	.09	.70	.50
21	−.13	.20	.56	.37
16	.15	−.21	.54	.36
25	.01	.20	.51	.30
고 유 치	3.12	1.55	1.53	
분산(%)	14.2	7.0	6.9	

반면에 Buehler와 Hogan(1986)의 연구결과에서는 대부분의 편부모들이 계획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정도에 따른 각 유형별 계획행동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정도에 따라 자원중심적 유형, 제약적 유형, 목표중심적 유형의 계획행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분석에서 의미있게 나타난 변수만으로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분류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자원중심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자원적정지각정도, 대인적자원적정지각정도, 남편의 직업으로 나타났고, 제약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전자원적정지각정도였고, 목표중심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막내자녀의 연령과 금전자원적정지각정도로 나타났다.

표 3. 요인별 문항번호 및 신뢰도 계수

요 인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α)
목표중심적 계획행동	5	.51
	4	
	2	
	1	
	14	
	3	
제약적 계획행동	10	.50
	24	
	27	
	13	
자원중심적 계획행동	16	.43
	20	
	21	
	25	

표 4. 각 유형별 계획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계획행동의 유형	평 균	표준편차
자원중심적 유형	2.11	.42
제 약 적 유형	1.89	.48
목표중심적 유형	2.55	.41

*계획행동의 점수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정말 그렇다)까지 분포함.

표 5. 건강자원적정지각정도, 대인적자원적정지각정도, 금전자원적정지각정도, 주거 및 지역사회자원적정지각정도, 남편의직업에 따른 자원중심적 계획행동정도의 중분류분석

총평균=8.39			통제되지 않은 편차	ETA	통제된 편차	BETA
변 수	집 단	(빈도)				
건강자원	낮은 집단	(104)	−.52		−.41	
적정지각정도	중간 집단	(171)	.17		.15	
	높은 집단	(140)	.18		.12	
	F=4.28*			.18		.15
대인적자원	낮은 집단	(74)	−.43		−.27	
적정지각정도	중간 집단	(231)	−.06		−.11	
	높은 집단	(110)	.42		.42	
	F=4.86**			.18		.16
금전자원	낮은 집단	(149)	−.09		.06	
적정지각정도	중간 집단	(218)	.07		−.03	
	높은 집단	(48)	−.04		−.07	
	F= .16			.05		.03
주거및 지역	낮은 집단	(151)	−.22		−.15	
사회자원	중간 집단	(147)	.23		.21	
적정지각정도	높은 집단	(117)	.00		−.08	
	F=1.95			.12		.10
남편의 직업	경영, 전문 ,사무직	(227)	−.06		−.05	
	자영업	(119)	.31		.33	
	생산기능, 노무직	(69)	−.32		−.39	
	F=4.65**			.13		.15
			R^2=.29			

*p<.05 **p<.01

건강자원적정지각정도, 대인적자원적정지각정도, 금전자원적정지각정도, 주거및 지역사회자원적정지각정도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세집단으로 구분한 것임.

먼저 표 5에는 자원중심적 계획행동에 대한 중분류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일원분산분석결과 의미있게 나타난 지식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정도, 주거 및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정도는 중분류분석 결과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정도, 대인적 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정도, 남편의 직업에 의해 자원중심적 계획행동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건강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정도와 대인적 자원에 대한 적정지각변수는 타변수를 통제한 결과, 설명력이 감소하였다. 건강자원에 대한 적정지각변수의 경우, 타변수를 통제하기전 자원중심적 계획행동을 가장 많이 한 집단과 가장 적게 한 집단간의 차이가 .70 에서, 통제한 후에는 .56 으로 감소하였고, 대인적 자원에 대한 적정지각변수는 통제하기전 자원중심적 계획행동을 가장 많이 한 집단과 가장 적게 한 집단간의 차이가 .85 에서, 통제한 후에는 .69 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건강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정도와 대인적 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정도가 낮은 집단이 자원중심적 계획행동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에 대한 지각정도가 낮을수록,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융통성 있는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의 직업변수는 타변수를 통제한 후에 설명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집단이 자원중심적 계획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남편이 생산기능직이나 노무직에 종사하는 집단이 자원중

표 6. 대인적자원적정지각정도, 금전자원적정지각정도에 따른 제약적 계획행동정도의 중분류분석

총평균=7.56			통제되지 않은 편차	ETA	통제된 편차	BETA
변 수	집 단	(빈도)				
대인적자원	낮은 집단	(88)	−.10		−.21	
적정지각정도	중간 집단	(292)	.18		.14	
	높은 집단	(134)	−.33		−.16	
	F= 1.82			.12		.08
금전자원	낮은 집단	(181)	.40		.40	
적정지각정도	중간 집단	(264)	−.04		−.05	
	높은 집단	(69)	−.89		−.84	
	F=10.54***			.21		.21
			R^2=.23			

***p<.001

표 7. 막내자녀연령, 주거 및 지역사회자원적정지각정도, 금전자원 적정지각 정도에 따른 목표중심적 계획행동정도의 중분류분석

총평균=12.36			통제되지 않은 편차	ETA	통제된 편차	BETA
변 수	집 단	(빈도)				
막 내	7세 이하	(44)	.78		.74	
자 녀	8−13세	(265)	−.28		−.24	
연 령	14−19세	(184)	.24		.21	
	20세 이상	(9)	−.58	−.69		
	F=2.74*			.14		.13
주거및 지역	낮은 집단	(171)	−.37		−.33	
사회자원적정	중간 집단	(192)	.28		.19	
지각정도	높은 집단	(139)	.07		.15	
	F=2.06			.11		.09
금전자원적정	낮은 집단	(175)	−.05		.03	
지각정도	중간 집단	(259)	.22		.18	
	높은 집단	(68)	−.72		−.75	
	F=3.57*			.12		.12
			R^2=.21			

*p<.05

심적 계획행동을 가장 적게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6에는 제약적 계획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제시되어 있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의미있게 나타난 변수였던 대인적 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정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전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정도만이 제약적 계획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정도 변수의 경우, 타변수를 통제하기 전과 통제한 후에 설명력이 변화하지 않았고, 금전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정도가 높은 집단이 제약적 계획행동을 가장 적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전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금전이나 기타 여건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작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에는 목표중심적 계획행동에 대한 중분류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던 주거 및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정도는 중분류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막내자녀연령과 금전자원적정지각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막내자녀연령은 타변수를 통제했을 때 설명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타변수를 통제하기 전에 목표중심적 계획행동을 가장 많이 한 집단인 7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가진 집단과 가장 적게 한 집단인 20세 이상의 막내자녀를 가진 집단간의 차이가 1.37에서, 통제후에는 1.32로 감소하였다. 7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가진 주부가 목표중심적 계획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Deacon과 Firebaugh(1988)가 가족생활주기 중 특히 초년기가족은 어린 자녀나 취업으로부터의 요구가 가장 크고, 경제적인 압력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요구와 자원간에 불균형을 이룬다고 한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금전자원적정지각정도변수는 통제후와 통제전의 설명력이 변하지 않았다. 금전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정도가 높은 집단의 목표중심적 계획행동의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금전자원이 적정하다고 지각한 집단일수록 가족의 새로운 목표나 요구를 수용하고 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족의 복지와 사회의 복지를 개선하고, 체계적 접근법의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가정관리이론의 구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행동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계획행동의 실태 및 유형을 파악하고 계획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행동의 유형은 자원중심적 계획행동, 제약적 계획행동, 목표중심적 계획행동의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요인분석을 실시하면서 문항수가 감소하여 계획행동유형 척도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계획행동의 유형은 Buehler와 Hogan (1986)이 분류한 계획행동의 유형과 일치함으로써 미국의 계획행동척도가 우리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유형별 계획행동의 수준을 보면, 우리 나라 도시의 주부는 목표중심적 계획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가 목표중심적 계획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나 기회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균형과 항상성의 유지를 통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세째,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자원적정지각정도에 따라 자원중심적 유형, 제약적 유형, 목표중심적 유형의 계획행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알아본 결과, 자원중심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자원적정지각정도,대인적자원적정지각정도, 남편의 직업으로 나타났고, 제약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전자원적정지각정도였고, 목표중심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막내자녀의 연령과 금전자원적정지각정도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해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와 자원적정지각정도가 계획행동의 유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투입요소가 관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체계적 접근법의 명제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에서 특이하게 나타난 점은, 월평균소득은 계획행동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금전자원적정지각정도가 계획행동유형의 관련변수라는 점이다. Buehler와 Hogan (1986)은 그의 연구에서 소득과 계획행동의 유형과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후속 연구에서는 단순히 소득의 총합계 보다는 금전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주관적인 측정이 모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소득과 교육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변수는 자원의 지표로서 사용되기에는 너무 일반적인 경향이 있고 인적자원이나 환경자원과 같은 자원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므로,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의 측정을 포함하고 있는 자원적정지각변수가 가족의 포괄적인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또한,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대인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지각할수록, 자원중심적 계획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나, 자원이 많을수록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이 자영업에 종사할 때, 자원중심적 계획행동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자영업 종사자가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족생활주기의 지표로 선택한 변수였던 막내자녀연령에 따라 목표중심적 계획유형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가족이 특정한 유형의 계획행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생활주기를 통해 여러 유형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고 한 Deacon과 Firebaugh(1988)의 견해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유형별 계획행동의 신뢰도계수(α)는 .43~.51로서 .65~.75 로 나타난 Buehler와 Hogan (1986)의 계획행동의 신뢰도와 비교했을때, 낮았다. 이는 요인분석을 하면서 문항수가 감소하였고, 질문지 문항이 추상적이어서 응답자에게 구별되어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의 정교화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투입과 관리과정과의 관계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체계모델(투입-과정-산출)의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살펴보고, 또한 계획의 유형이 산출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박미금 · 장명욱(1985). 도시 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13.
2) 이안나 · 신효식 · 우희정(1991).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행동유형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37-153.
3) 이연숙 · 두경자(1992). 가정관리체계모형의 실증적 검증-서울 시내 주부 의 가사활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1), 163-178.
4) 이정숙 · 이정우(1984). 도시주부의 자아실현이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21-33.
5) 이정우(1982). 가족 환경적 요인이 가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대논문집*, 22.
6) 이정우 · 오경희(1988a).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관리 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 *숙대논문집(생활과학연구소)* 2, 27-57.
7) 이정우 · 오경희(1988b).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31-148.
8) 조미환 · 임정빈(1991).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 *대한가정학회지* 29(2), 169-184.
9) 조영희(1985).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조영희(1991). 자원적정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41-251.
11) Beard, D & Firebaugh, F.M.(1978). Morphostatic and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3), 192-205.
12) Brown, J.J., Heltsley, M.E. & Warren, R.D.(1982). Planning in low-income families : Influence of locus of control and dyadic consensus on realistic standard sett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67-75.
13) Buehler, C.M. & Hogan, N.J.(1985). Managerial functioning in single-parent. In S. Nickels(Ed.), *Proceeding of the Family Economics/Home Management Section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70-180. Washington, D.C. : AHEA.
14) Buehler, C.M. & Hogan, N.J.(1986). Planning styles in single-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4), 351-362.
15) Deacon, R.E. &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2nd Eds.). Allyn and Bacon.
16) Gross,I.H., Crandall,E.W. & Knoll, M.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7) Heck, R.K.(1983).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17-135.

18) McCaskey, M.B.(1974). A Contingency approach to planning : Planning with goals and planning without goal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7 (2), 281-291.

19) Rice, A.S. & Yucker, S. M.(1976). Family life management(6th Eds.). New York : Macmillan Pulishing Company.

20) Rowland,V.T., Doddler, R.A. & Nickols, S.Y.(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 : Development of a scal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4(2), 218-225.

21) Swanson, B.(1981). Introduction to Home Management. New York : Macmilan.